

평화지도



원폭동 체코 건축가 안 헛트르의 설계로 1915년에 건축. 원폭투하전까지 히로시마현 산업장려관으로 불렸다. 원폭으로 인해 건물 본체가 파괴되었고, 보존공사를 거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.

평화기념공원 피폭 기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폭동, 원폭위령비, 원폭자료관을 직선상에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공원내에 위령비가 산재한다.

원폭자료관 동관과 본관으로 나뉘어짐. 동관에서는 피폭 전후 히로시마의 모습을 소개하고, 본관에서는 유품과 피폭자료를 전시하고 있다.



주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문원
강희은 (31)

과거의 슬픈 역사만이 아니라 에도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을 찾은 우호사절단 '조선통신사'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간 진심이 오가는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

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면 징용 등으로 연행된 후 피폭당한 한국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한국은 원폭투하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만, 원폭자료관을 방문하면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. 조선통신사가 기향한 구레시의 자료관에는 통신사를 대접한 푸짐한 요리를 재현해 두었습니다. 후쿠젠지 절의 다이초로에서는 통신사가 칭찬을 아끼지 않은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

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징용 등으로 히로시마에 연행되어 피폭당한 이들을 위한 위령비. 1999년에 평화기념공원내로 이설되었다.

조선통신사자료관 '고치소이치방칸' 구레시 시모카마가리정에는 에도시대 조선통신사가 기향했었다. 자료관에는 통신사를 대접한 재현오리의 모형 등을 전시함.

후쿠젠지 절 다이초로 에도시대, 조선통신사의 숙소로 사용되었다. 통신사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진다.